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비극 앞에서의 욕의 반응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내가 욕이었다면 그렇게 반응 할 수 있었을까요?
 - '까닭 없는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 사랑은 입증될 수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니다.

들어가며

지난 시간 우리는 욥의 프로필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동방 우스 땅의 거부였습니다. 그는 일곱 아들과 세 딸을 둔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흠이 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성공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1. 이야기의 시작

욥기 이야기의 시작에 있어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욥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땅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늘의 회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천상 회의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사탄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놀랍니다. 사탄은 ‘고발자’, ‘감찰자’라는 뜻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고소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활동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스럽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문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1:9).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소유물들을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울타리로 감싸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일뿐,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의 태도도 돌변할 것이라고 사탄은 도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욥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까닭 없는 사랑,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뒤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인간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는 분입니다(요일 4:16). 하나님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그분과 사랑과 신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나누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사랑의 모습은 외부적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꿈에 그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인간과 나누고자 하십니다.

2. 하나님의 변호자

조건 없는 사랑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은 그 조건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들을 사탄이 하나씩 허무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자 욥은 영문도 모른 채 수많은 재산과 그의 생때같은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잃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밀어 애통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포기하지 않고 그의 뼈와 살을 직접 치도록 허락하실 것을 하나님께 청하였습니다. 사탄은 인간이란 존재가 결국 자기 자신의 육체적 고통 앞에서는 신앙도 버리고 말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욥의 온 피부가 저주의 상징인 악성 종기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재위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의 상실을 넘어, 자기 몸을 찢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욥은 인생의 비극 앞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변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변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하여 입증되고 확장됩니다.

그런데 아직 욥기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욥은 그에게 마지막 남은 신앙이라는 울타리를 허무는 치열한 논쟁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루하고 고통스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새롭게 눈 뜨게 될 것입니다.